예수 승천 대축일 세계 흥보의 날

기도서 305년 (A해)

페

제1독서:사 F

1, 1 - 111.17 - 23

음:마

제2독서: 에

28.16 - 20







천 주 교 전 주 교 구 흥 보 국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 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 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정의와 평화의 증진을 위한 사회홍보

-세계 홍보의 날 교황 메시지 요약-



친애하는 사회홍보 종사자 들과 수혜자 여러부!

사회홍보는 교류와 대화의 장(場)입니다. 사회 홍보는 바로 정의를 통해 평화를 증

진하는데 기여하며, 공포의 세력균형을 상호시뢰의 저략 으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본이은 그 어떤 정박 한 심경에서 "정의와 평화의 증진을 위한 홍보"를 1987 년도 세계 홍보의 날의 주제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인 은 누차 이 말을 반복해 왔지만, 올해 홍보의 날을 맞이 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상호신뢰는 기존 정치인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그것은 꼭 모든 사람의 양침에서 우려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홍보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은 대중이 결코 무명의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날로 전 보된 기술과 보다 효과적인 홍보수단에 힘입어 그들 나 름대로 개인적인 이해력과 감수성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각자 모든 사람들과 연계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정의와 평화에 봉사하는 홍보수단을 통해 상호신뢰의 전략을 전파하자는 나의 호 소가 홍보종사자 여러분의 양심에 되새겨지기를 바랍 니다.

평화는 인간과 공동체의 보다 깊은 상호인식에 달려 있읍니다. 따라서 여론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정의와 평 화를 증진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사 방에서 전해오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사회홍보 수혜자들 이 폭력의 해악과 신뢰에 대한 희망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정보전달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는 대화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화는 동서남북 곳곳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폭력의 균형에서 이루어진 것은 "위장 된 평화"로서 그것은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오 직 진정한 대화를 통한 홍보만이 민중들의 마음속에 온 화한 평화에 대한 뜨거운 영원과 기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모든 것을 잃게 하지만 평화는 결코 아무것도 잃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홍보프로그램 을 통해 일깨워줄 필요가 있읍니다. 따라서 다른 어떠 한 수단보다도 홍보전략은 전쟁의 원인, 즉 폭력을 유발 하는 수많은 불의를 제대로 폭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건설적 선택을 하도록 진실되게

홍보하는 일은 바로 폭력과 분쟁의 모든 원인들을 고발 해야 할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의 과업"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 고, 우선 불신의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서로 대립된 계층, 그리고 문화의 모든 장벽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홍보수단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겠읍니까?

우리는 모두 정의와 평화의 소명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여러분이 솔선해서 유포 시켜야 함 일들 가운데서 평화와 정의에 관한 크리스찬 의 이상, 평화와 정의에 관한 크리스찬의 메시지를 분명 히 밝혀주고 동시에 그 이상과 메시지를 따르도록 권고 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 모두가 일종의 '저쟁행위'이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홍보매체의 결과 하나 하나가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명심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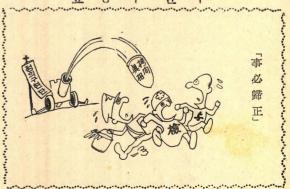
친애하는 사회홍보 종사자들과 수혜자 여러분!

여러부들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나 또한 프로를 시청 하고 어떤 응답을 보일 때나, 결코 정의와 평화의 시각을 망각하지 마십시요. 이점에 있어서 본인의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를 신 뢰하오니, 여러분 또한 전 인류를 위해 신뢰심을 갖고 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 러분 모두에게 기꺼이 사도적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1987년 세계 홍보의 날에

바티칸에서 요한 바오로 2세

숲정이 사책





감추면 뭘 해!

오늘날 대중매체의 발달로 세상은 아주 좁아졌다. 신 문을 대하거나 텔레비젼 앞에 앉아 있으면 세계 어느 곳 의 소식이나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좋 은 세상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대 중매체가 전해주는 흐름이 「일방통행적」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까딱하면 왜곡된 것만 전해지고, 그러다보면 일방적인 전달을 통해서 세뇌가 되고 바보되기가 십상인 것이다. 자실, 우리는 유신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보도매 체의 공정보도를 촉구"하면서 텔레비젼 시청료 납부 거 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25일자 동아일보 12면의 TV평 기사는 이런 제목을 붙이고 있다. -「박군 사건」 TV보도, 본질문제 외면/축소조작 도외시…당국 발표만 전달/천주교 사제단 성명, 단 한 마디 언급없어. 그 내용인즉, "양 TV(KB S, MBC)는 당국의 발표내용은 비교적 충실하게 전달했 으나, 지나치게 당국의 발표에만 의존한 나머지 사건의 본질적인 「인권」과 연관되는 부분에서는 소홀했으며, 특 히 이번 조작사건 폭로의 기폭제가 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성명발표 등에 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 급하지 않는 등 뉴스 보도의 균형을 잃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시청자들이 마치 당국 스스로 이 사건을 조사 해 발표한 듯한 오해를 일으키게 할 소지도 안고 있었 다"고 그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아픔이요 민주발전의 장애요소인 것 이다.

오늘은 홍보주일, 이날에 나눌 수 있는 우스개가 하나 있다. - "어째서 예수 부활사건이 맨먼저 여자들에게 알 려졌을까?" "그것은 여자들이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명 수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신앙의 핵심 인 부활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사제들은 경비병을 매 수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때나 그때나 하는 것 거리는 비슷하다. 그러나 어디 감춘다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는가?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이 안타깝기만 하 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 그러지 못하게 촉구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무관심을 통 탄해야 한다. 그리고 새벽길을 달려 부활사건을 알리 는, 진실에 대한 열정을 배워 실천해야 한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풍토를 위해서, 사실보도를 하는 언론풍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 신앙을 이어주신 어버이 명단 *

※ 어버이 효도잔치 메달수상자(성직자 부모님 제외)

중앙:원현식 이상범 진병기 강복례 구순임 김귀임 김기차 김영애 김필애 문순례 박남주 오재희 엄**경숙 이북**석 김정자

고산: 김수천 이갑용 이복신 이중연 송철현 이윤학 최재봉

금암: 노톨리 이화순 김아순 박성녀

덕진: 김질수 오복용 동산: 육중기 김완옥 김동석 김옥준 복자:원용규 이태선 허재석 최소향 이봉춘 원**분순 유복례** 배순삼 이산홍 정춘자 이만석 유금순

삼례: 김용복 강신승 전여자

상관: 강문옥 서병철 강연철 안복순 박성열 이원**갑** 박별라 김만순 김봉선 김순이 송복례 김금순

전동:이귀남 홍철호 김성녀 이선경 이금옥

효자동: 박귀선 강순례 숲정이: 유영순 이선애 오수복

서학동: 강문옥 정길순 주현동: 김봉금 박지환

여산: 김종석 박영길 오수환 이옥례

영등동: 허기봉 김연철 손병임 장순남 박춘봉 송말지 문기 화 이발바라 강금동 송누시아

용안: 정태현 백귀동 김영일 최기숙 황기모 박상철 박귀동 전용은 백일해 소도암 양제환 정만희

창인동: 시병진 성효정 최봉용 전재순 권방례 박한묵 김수 영 최남진 장영금 손병선 정재식 이동출 오종록 김대의 김은홍 이수암,김정례 박봉준

황등: 송석현 강귀례 박철근 유봉녀 조순례 김봉열 김한례 함열: 석종훈 대야: 안영조 전연임 신동:

둔율동: 박순임 장양금 양낭녀 윤막대 이현주 월명동:원용운 김질성 팔마:조한석 김안나

고창:이중레 이맹순 요촌:문도석 김영옥 이봉춘 전판술 부안: 정안옥 박점이 권귀례 이순례 유순례 주만옥 윤누시 아 오덕순 정분례 조순여 김앵두 이점례 고봉여 신

신태인 : 김일용 김동윤 최순희 박금래 윤귀례 오기봉 윤동 석 이의암 박기호 손순이 김보례 이원일

원평: 강평순 이소희 이경애 김백용

영례 이금례 수류: 오이봉

시기동: 서복례 김영식 박용자 양순이 노경팔 조옥례 고판 례 김순이 조복례 김 안숙

신풍: 송성녀 김행순 장양례 김복만 정애순 박분례 강상기 연지동: 이요진 김금순

남원: 김후영 최만성 무주: 워호인

임실:서용계 황순덕 황금성 황도열 원완형 권안녀 소재원 이마리아 김낙영 최순례 서정길 최행철 하금례 김소 림 이장생 박세순 유정석 이봉기 김복순 이영금 정 봉아지 지연화 이상금 채희순 최정숙 이판용 박순애 이순덕

장계: 육태용 김기봉 배봉례 정영순 이창호 원연순 김효순 이상용 김점례 강양금 박계순 최용진 이선례 노성로 장수: 박중옥 진안: 함연국 정영만 박태옥 유유학 유한기

장 남 卫 산

봉고차 대기 會 83-4108 보양탕 • 삼계탕 • 백숙 • 추어탕 • 닭도리탕 • 숙회 좁은목 약수터에서 300m 한일주유소 옆

> 규(아오스딩) 01 종 곽 정 옥(데 레 사)

성바오로 서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터전 이 되고자 성바오로 여자수도회 수녀들이 봉사하 는 서점입니다

가톨릭내의 모든 서적 • 카세트 • 비디오 • 슬라이 드 • 카드 종류를 취급하고 있읍니다

전 주 성 바 오 로 서 원

전주시 서노송동 639-3 🕿 3-3398

H 立 식

☆ 축! 견진:중앙천주교회, 6월 7일 오후 2시, 주례 -박정일 주교님

- 1. 50주년 상임위원회:6월 2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회의실
- 2. 성모성년 경축 특별피정: 주제 말씀과 성령과 마리아, 참가비 1,000원 일시-6월 6일(토) 오전 9시40분-7일(일) 오전 6시, 장소-전주 해성중·고 강당
- 3. 사회복지 6월 월례회:6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가톨릭 사회복지회관
- 4.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6월 4일(목) 오전 10시~17시, 장소-덕진천주교회
- 5. 전주교구 교리교사 체육대회:6월 6일(토)
- 장소-전주 성심여·중고(우천시에도 행사합니다) ※ 많은 참석바랍니다 6. 전주교구 수녀연합회:6월 8일(월) 오후2시, 초청강사-이완영 수녀님, 가톨릭센타
- 7. 군종후원회 월례미사:6월 15일 오후 8시30분, 장소-가톨릭센타
- 48. 프란치스교 재속3회 전주지구협의회 주최 1일피정:6월 6일 오전 9시~17시 장소─전주 노송천주교회, 준비물─수도복·기도서·성가집·칠착묵주·도시락, 회비─1천원
- 9. 사제 인사발령 : 박종근 신부, 필리핀 EAPI연수(임실본당) 박인호 신부, 임실 주임(이태리 Focolare연수) ※ ()안은 전임지
- ※ 전화번호 변경안내: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85-2935, 베소라성서 85-4979

성모 성년 선포 장엄미사 및 어버이 효도 기념행사에 많은 참여로 성황을 이루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 저 주 레 지 아 단 장 채 수 혀 교구 평신도협의회 회장 김 인 협

10만인 성지순례(숲정이→치명자산, 오후 2시)

일	당당 신부	일 1	담당 신부 1	일	담당 신부
31(일)	정청봉심부	6(토)	이재후 신부	11(일)	범석규 신부

♣ 잠 깐 1 -

오늘은 홍보주일

근래처럼 신문을 자세히 읽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평소에 그만큼 우리 사회의 보도매체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이다. 조작되고 은폐된 어떤 진실이 밝혀질 때의 모든 인 자의 심정은 기쁘기도 하지만 오히려 슬픈 안타까움과 울분, 분노가 치밀게 된다.

연일 계속됐던 어느 신문의 제호처럼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밝혀지게 되고 또 밝혀 져야 한다. 그 진실을 올바로 밝히는데 모든 홍보수단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오늘 교 황님 메시지 중의 말씀이다. 그러나 홍보수단의 제기능을 위해서 홍보수혜자들의 끊임 없는 도저과 엮워과 기대, 그리고 질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현대를 일컬어 정보 시대라고 한다.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올바른 정보만이 올바른 삶을 가능 케 한다.

진실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렇다. 무엇을 읽고 보고 듣는가? 참다운 그리 스토이의 삶을 위하여 -그 삶의 성스런 윤택을 위하여, 아니 가톨릭 신자라고 자처하는 당신은 가톨릭신문 한 장이라도 구독하고 있는가? 1년중에 신심서적 한 권이라도 읽어 보는가? 도대체 신앙인으로써 성서 몇 장 읽어 봤는가? 마음만 현란케 하는 사회의 온갖 잡지들 속에서만 허우적거리지는 않는가?

참다운 신앙인으로써 진실을 붙잡고 살자. 그러기 위해서 진실을 보고, 듣고, 말하 자. 적어도 신자라면, 성서 한 장, 신심서적 한 페이지, 가톨릭신문 한 부 정도씩은 읽 으면서 살자. 진실이 무언지 알아야 진실을 바라고 진실을 살게 아닌가?

(721) (1

박군물고문치사사건 저주교 사제단서 不对至星!人



검찰은 묵인 방조했으니"

세상에 믿을놈은 하나도 없구나!

口1분명상

여러분이 남에게서 바라는 그대로 여러분도 남에게 해주시오

-마태오 7,12

11

명동리부과의원

베소라성서 강의 입은 마음의 열매이다

-말(言)의 무서움 (叶时 12:33-37, 7:16-18)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센타 3층

강사 1 김정원 신부 회비 1 매주 1,500의

성모성년 경축 특별피정

-주제: 말씀과 성령과 마리아-

- 구세· 글음과 성공과 마디어 일시: 6월 6일(토) 오전 9시40분~7일(일) 오전 6시 장소: 전주 해성 중·고등학교 강당(윤호관) 초청강사: 박정일 주교님, 김환철 신부님, 김정원 신부님, 오기선 신부님, 이인복 교수님, 김발 다살 회장님 참석대상: 모든 교우(예비교우 환영) 참가비: 1천원(도시락 지참) 피정안내: 6일 오후7시부터 「파티마의 기적」영화상영 오후 10시부터 철야기도회 있음

아직도 가톨릭新聞을 읽지 않고 계십니까? 지금 곧 정기구독 신청을 하십시요.

가톨릭新聞 | 부는 한 사람의 전교사 ! 신자 가정마다 가톨릭新聞 | 부씩 !

> 구독신청 전화: (0652) (85) 0 0 4 1~3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가톨릭신문사 전주지사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 민 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윤 양 호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 의 도

견진:성신강림대축일(6월 7일) 교리-6월 4일~6일, 주부 및 노인-오후 2시, 일반 인-저녁미사 후, 오늘까지 접수바랍니다
 성체강복:5일(매월 첫금요일) 저녁미사 후
 예비신자 하루피정:오늘 오후 1시~저녁미사

중앙성당

4. 병자방문: 2일(화) 오후, 신청-사무실

5. 본당신자 및 레지오단원 성지순례: 6월 21인
장소-여산성지 및 메리내성지, 회비-4천원

6. 모임: 재속형제회-오늘 오후 2시
다미안회-6월 3일 오후
성심부녀회-예수성실대축일(26일)로 연기
사목협의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자모회-다음주일 오후 3시

7. 성모성년 경촉 특별피정: 6일 오전 9시30분~7일 오전 6시, 장소-해성중·고 강당, 회비-1천원

8. 성제회:지속적인 성체조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9. 교구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30주년 기념사업 신입 및 납부에 적극적인 절조바랍니다
지난주 봄험금: 1,073,750원 교무금: 535,000원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 현 택 사무실 사목회장 소 완 영 수녀된 76-0961

☆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1. 금성회·금앙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 차주 공식미사 후

5.

사목회:차주 공식미사 후 무근실료 울뜨레야: 6월 4일 공식미사 후 반장님 성시간: 6월 4일 저녁미사 후 (매월 첫목요일 실시) ※ 뜻있는 실자 참석요망전신자 성지순례: 6월14일 배론성지, 참가비-5천원예비자 특별교리: 6월 6일까지 실시합니다※ 통신교리 수료자 수녀님 면담바람유아세례: 6월 7일 공식미사 중. ※ 대상자는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세요감사: 성모의밤 행사에 협조해주신 분께 신축현금—장쌍순(1만원), 조정응(4만원), 익명(15만원)

그 중 (13년년) 금주복사:이창우·문승욱 차주:정문영·장수택 금주복헌: 김종섭 부부 차주: 임은백 부부 지난주 봉헌금: 595,530원 교무금: 392,000원 신축헌금: 200,000원

사제판 72-6107 수임신부 김 몽희 시무실 3-218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 낙현

빈병 수집으로 사랑을 나눕시다 ※ 6월부터 빈첸시 오회에서 반모임을 통하여 실시합니다 오늘의 모임·행사

오늘의 모임·행사 예수승천대축일 야외미사 및 소풍:예수승천의 기쁨을 형제에로 드려내는 하루가 됩시다, 장소—예비군교육장, 10시30분까지 집결 ※ 오늘 학생·공식·어린이미사는 없읍니다 금주의 모임·행사:까리따스회-2일 오후 2시성심부녀회-3일 오전 10시신자 1일퍼정(푸른군대 주관)-4일 오전 10시선강림대축일 준비 봉성체 및 병자성사:2일 ※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세요. 전주지구 중·고등학생 체육대회:6월 6일, 해성학교운동장 ※ 본당 중고생들 많은 참여바랍니다 빈첸시오회 단합대회:6일~7일, 지리산사라안에서 더욱 일치하는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송천성전을 1회이상 방문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느님

6 . 송천성전을 1회이상 방문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느님 께 영광을 드립시다.
7. 금주의 본당청소:상지의 옥좌pr-6일 오후 2시 지난주 봉헌금: 748,070원 교무금: 303,000원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 01 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 **상** 갑 (동산)

※ 성령맞이 기도주간:전교합시다 (마태오복음 28, 19b-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 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때까지 항상 너 희와 함께 있겠다

의와 함께 있겠다」
1. 6월 9일~7월 13일까지 본당신부님의 긴 피정기간입니다:손님신부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본당신부님이 안제시는 동안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지냅시다
2. 수요 성령기도회 및 나눔미사:많이 참석하세요
3. 금주 구역미사·모임:화·금요일 오후 8시30분

2일:미사-팔1구, 모임-농원, 3일:나눔잔치-팔복1구역, 5일:미사-원반월 모임-팔2·4구

4. 모임안내: 애덕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애령회 - 차주 공식미사 후

애령회 — 차수 공식미사 우
5. 본당청소: 자비의 모후
6. 수녀님 기정빙문: 은총의어머니(팔복지역 방문바람)
7. 기도 청합니다: 조규자 대학병원 5044호
권석진—대학병원 정형외과 7병동
8. 금주전례: 해설─최정진, 독서─①진창수 ②전점순
□ 지난주 봉헌금: 315,330원 나눔의날: 36,330원

사계관 76-1320 수입신부 나 궁 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 해 근 수녀원 3-9567 000 (숲정이)

☆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축하합니다: 신앙을 이어준 어버이 효도행사에 혼장 수여반으신 이선애·오수복·유영순 할머니께
 오늘 전신자 야외미사 관계로 아침·저녁미사만 본당

에 있음

3. 성접 정화사업: 총납입액 69,803,000원 .①협조하신 분께 감사 ③신입 안한 세대 신입바람 ③신입세대 납부에 협조 4. 사목회: 2일 오후 9시 5. 4일 모임: 부녀회 - 10시, 구역장 모임-11시

4. 사목회: 2일 오후 9시
5. 4일 모임: 부녀회 - 10시, 구역장 모임 - 11시
6. 6월 교리반이 시작됩니다
①목요일반 - 4일 오후 9시, 지도 - 신부님
②주일반 - 다음주일 오전 9시, 지도 - 수녀님
7. 6일: 중고등부 체육대회 - 해성학교
초등부 교리교사 체육대회 - 성심학교
8. 구역별 반조정: 구역모임 때 구역장님 통하여 알려드리니다

립니다

9. 미사안내:바다의별, 차월-매괴의 모후

10. 금주 본당청소:화─바다의 별, 토─샛별의 모후
11. 금주전례:해설─홍성조, 독서·기도─김진섭·김영화
봉헌기도─양승진·홍신옥
차주전례:해설─강원모, 독서·기도─홍성수·유현숙
봉헌기도─김남곤·이영희
□ 지난주 봉헌금: 403,770원 교무금: 624,100원

사제판 74-1929 주임신부 서 용 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 병 문 수녀원 75-6389

시목회 성지순례 : 6월 6일 오전 8시(전라국교 앞)
 용세식 : 6월 28일 예비신자분들은 준비를 잘 하시기

3. 신입합시다:성전 신축헌금을 세대별로 신입하시고 납부합시다

합무합시다 4. 모임: ①신임 구역장님은 6월 4일 어머니미사후 첫 모임을 가집니다. 꼭 참석바랍니다 ②애령회 모임—매월 둘째주 공식미사 후 ③사목회 월례회의—매월 첫째 공식미사 후 위원장님, 차장님, 감사님 5. 미사 봉헌합시다: 먼저가신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위 려미시와 가전 가산미사를 보험하십다.

령미사와 가정 감사미사를 봉헌합시다

6. 감사:성모의밤 행사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7. 생각해 봅시다:바쁘시더라도 마침 기도후에 가세요.

□ 지난주 봉헌금: 432, 280원